경제혁신 3개년 계획 "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"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 제 혁 신
희망의 대한민국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3월 2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.방송.통신 3월 28일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석유산업과 과장 박재영(044-203-5220), 사무관 김준겸(5221)

오일허브 주역인 트레이더 양성 적극 지원

- 재직자 대상 에너지 거래(트레이딩) 전문가 과정, 트레이딩 석사과정 등 인력양성 사업 본격 추진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, 이하 산업부)가 **에너지 트레이딩 전문가 과정*** 개설을 시작으로 **에너지 거래(트레이딩) 인력*** **양성**에 본격적으로 나선다.

* 에너지 트레이딩 전문가 과정: (운영기관) 해외자원개발협회, (교육기간) 2016년 1차 : 3.21(월)-25(금) / 2차 : 10.10(월)-14(금), 년 2회

* 에너지 거래 인력(트레이더) : 에너지원에 대한 매수 및 매도, 차익거래 실현, 리스크 관리 등을 목적으로 현물, 선물 등의 다양한 거래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

○ 동 과정은 에너지 분야 민간기업, 공기업, 종합상사 등 **유관 분야 재직자들의 거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**되었으며, 전·현직 거래인력 등 **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강의로 구성**되었다.

* 주요 교과목: ①국제에너지 시장 개요 및 트레이딩 이해, ②에너지 가격변동, ③석유제품 및 정제, 정제마진 관리 ④혼합저장기(Blending), ⑤용선·운영, ⑥무역·계약, ⑦파생상품, ⑧위험 관리 ⑨ 거래(트레이딩) 실습 등

○ 그간 각 기업별 수요에 의해 **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트레이딩 교육을 체계화**하고 에너지-금융-물류 등 **업종간 인적 교류의 장을 마련**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, **관련 기업들로부터도 큰 호응**을 얻었다.

* 제1기 트레이딩과정 수강생 모집 결과 : (신청) 70명 / (정원) 30명 → 경쟁률 2.5 : 1

○ 지난주(3.21~25) 시행된 전문가과정에 참여한 **수강생**들은 "**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생생한 해외 사례**를 전해들을 수 있어 매우 만족"하였으며, "향후 보다 **심화된 교육과정까지 개설될 수 있기를 희망**"한다는 등 긍정적 반응을 전하였다.

* (에너지업계 수강생) "선박·물류 등 생소하지만 트레이딩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 습득", (금융업계 수강생) "재무제표로만 접하던 산업의 실제 흐름 파악 기회"

□ 산업부는 이번에 개설된 **'에너지 트레이딩 전문가 과정'** 외에 **고급 트레이더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**도 함께 **지원해 나갈 계획**이다.

○ 석사과정은 트레이더를 지망하는 경영·경제, 무역, 화학공학 등 **관련 학부 졸업생들에게 에너지-금융간 융·복합 교육**을 제공한다.

* (트레이딩 석사과정) 에너지자원 거래기술 전문가 고급과정 신설('16.9월) → 교육과정 주관기관 선정('16.6월) 후 2학기부터 해당 과정에 년 3.8억 원의 교육비 지원

□ **트레이딩 인력 양성**은 **「동북아 오일허브 추진 대책」**(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, '14.3월)의 핵심 과제로서,

○ **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** 현재 **저장시설 건설·운영 등 초기 단계가 진행 중**이며,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석유 거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**전문 트레이딩 인력의 확보가 시급**한 상황이다.

* 아시아 지역 트레이딩 허브인 싱가포르의 경우 60여개 트레이딩 업체에 500명 이상의 전문 트레이더들이 활동 중 (한국인 인력 다수 포함)

○ 싱가포르 등 선진 오일허브의 사례에 따르면, **전문 에너지거래 전문 인력 양성**을 위해서는 **대학-현장실무-재교육 과정을 거쳐** 적어도 **10년의 기간이 소요**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* BP, Shell 등 글로벌 석유 메이저 회사들은 MBA 졸업자 및 자사 경력직을 대상으로 자체 트레이딩 전문 교육과정(1년) 및 도제식 현장교육 실시 중

○ **산업부**는 이번 거래전문가 **인력 양성 사업**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등 기존 오일허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**국내 에너지거래 전문 인력의 양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**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석유산업과 박재영 과장(☎ 044-203-5220), 김준겸 사무관(☎ 044-203-52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에너지 트레이딩 전문가 과정 개요

□ 운영 기관: 해외자원개발협회

□ 교육대상자

○ 유관분야 (정유, 자원개발 등) 종사자: 입사 3~5년차

○ 비유관분야 (금융, 자산운용 등) 종사자: 입사 5~10년차

□ 교육 기간 ('16.3.21~25 / 10.10~10.14)

○ 1주일 집합교육 (5일*8시간=40시간) / 연 2회* 개최 (회당 정원: 30명)

□ 교과목

일차	교육 내용
1일차	○ 에너지 트레이딩의 이해 - 동북아 오일허브 정책 소개 - 에너지 수급현황, 유종별/제품별 시장의 이해, Physical/Paper 시장의 이해 - 에너지트레이딩의 글로벌 사례
	○ Upstream 개요: 자원 개발, Financing 개요
	○ 에너지 가격 변동의 이해 - 에너지 가격변동의 역사 - Energy Economics, Fundamental, Geopolitics, Financial 등
2일차	○ 제품유 및 정제 기초(1) - 제품별 규격 및 spec상의 특이점 - 정제 과정 기초
	○ 제품유 및 정제 기초(2) - 세계 정유업계 동향 및 정제 지도 - 물류 흐름 등
	○ 정제 마진 관리 기초 - Crack Spread 에 대한 이해
3일차	○ Blending 기초(1) - Trader 관점 (경제성 분석)
	○ Blending 기초(2) - Inspector 관점 (블렌딩 프로세스)
	○ 무역/용선/운영/계약 기초 - Tanker & Chartering / Storage 운영 / 표준계약서 및 법률
4일차	○ 파생상품 기초 - Future/Option/Exchange 거래, Forward/Swap 거래, Spread 거래
	○ 에너지 시장의 가격 구조 - Platts 및 Argus 등의 가격 평가 방법론 이해
	○ Trading의 기술적 분석
5일차	○ 리스크 관리 및 P&L 최적화(1) - Market Risk 분석 및 관리
	○ 리스크 관리 및 P&L 최적화(2) - Credit Risk(Counter party Risk) 분석 및 관리
	○ 모의 Trading
	○ 주요 Business model - Breaking & making bulk, location margin, storage 운영 등

참고2 **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**

1. 사업 개요

□ 우리나라를 세계 최대 석유시장으로 부상중인 동북아시아의 석유 거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, 여수·울산지역에 대규모 상업용 저장시설을 건설·운영하고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
* 동북아 수요(세계시장 비중, BP): ('12) 17.9백만B/D (19.8%) → ('14) 19.2백만B/D (21.0%)

<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 ('14.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) >

◈ (**주요 내용**) 여수·울산의 석유 탱크터미널 설비구축과 함께 과감한 규제 완화와 비즈니스 여건개선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4대 오일허브 국가로 육성

* 기존 세계 3대 오일허브: 美 걸프만, 유럽 암스텔담-로테르담-앤트워프(ARA), 싱가포르

◈ (**추진 과제**) ① 상업용 저장시설 확보, ②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, ③ 트레이딩 인력양성 등 중·장기 인프라 구축

2.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

□ **(저장 시설)** 여수와 울산에 **총 3,660만 배럴 규모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건설·운영**하여 국제적 석유거래 거점 조성

< 오일허브 상업용 저장시설 구축계획 >

구 분	여 수	울 산	
		북 항(1단계)	남 항(2단계)
사업기간	'08~'12	'10~'18	'16~'20
사업규모	820만B(원유 350, 제품 470)	990만B	1,850만B (잠정)
접안능력	4선석(1~20만톤)	5선석(1~12만톤)	4선석(20~30만톤)
추진현황	상업 운영 중 ('13.3~)	건설 중	예비타당성 조사

○ 현재 운영 중인 여수 사업은 '16.2월 현재 99.6%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고, 물동량도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음

◈ 여수 OKYC 계약률 추이: ('13)75.6% → ('14)87.7% → ('15)93.3% → **('16.2) 99.6%**
◈ 물동량 추이: ('13)13,113천B → ('14)48,957천B → ('15)88,595천B → ('16.2) 15,700천B
◈ 항차(航次) 추이: ('13) 53 → ('14) 156 → ('15) 1,018 → ('16.2) 233

□ **(혼합제조 허용)** 석유 트레이더에 적합한 업역인 **"국제석유거래업" 신설** 및 종합보세구역 內 **석유 혼합제조(blending) 허용**

* (현행) 혼합에 의한 석유제품 제조는 석유정제업자만 가능 → (개선)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시 종합보세구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혼합 제조 가능

○ **석유사업법 개정안**의 국회 제출 이후 산업위(법안소위) 논의 중

< 혼합제조(blending) 허용을 위한 석유사업법 개정 필요성 >

□ 오일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내 여러 국가의 품질기준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

○ 싱가포르·네덜란드 등 기존 오일허브 지역은 자유로운 블렌딩을 허용하여 물류 거점에서 거래 중심지로 성장하였으나,

○ 한국은 원천적인 블렌딩 규제로 트레이더 유치에 한계

⇨ 블렌딩 **허용**은 기존 오일허브와 경쟁하기 위한 **최소한의 사업 여건** 조성이며 **가장 기초적인 진입장벽 해소**

* ① 여수·울산지역에서 영업 중인 국내 기존 탱크터미널 업계의 경쟁력 강화, ② 국내 석유가격 견제 효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증대 등의 효과도 기대

□ **(제도 개선)** 외국적선 용선제한 완화,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완화, 외투 세제지원 등 **물류·금융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** 제공

* 해당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(해수부·관세청·기재부) 고시 개정 등 완료

□ **(중장기 인프라)** 트레이딩 전문 인력 양성, 금융서비스 확대 및 청산소·거래소 육성 등 **석유거래 인프라 적기 구축** 등

○ 특히 동북아 오일허브가 무역,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발전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 중요한 트레이딩 전문 인력 양성 추진

* 에너지 트레이더 :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해 에너지원을 거래하는 전문인력으로서 현재 국내 기반은 미미하나 향후 인력수요 증가 전망

→ ① 대학원 수준 예비 트레이더 양성 지원('16.2학기~), ② 재직자 대상 트레이딩 교육 개설('16.3월~) 등

/끝/